



제02호 / '16.4.22(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2,050원 인상!
취업규칙 개악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일반해고 금지!
조합활동시간 보장!

발행처: 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경제위기 책임 떠넘기지 마라

자본의 책임 떠넘기기, 올해는 안된다

2차 교섭이 4월 21일 한온시스템에서 열렸다. 4월 7일 1차 교섭은 사측 불참으로 무산되었고 2주 만에 2차 교섭이 열렸다. 사측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김정태 지부장은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쉬운해고 행정지침을 내려서 노사간 심각한 마찰이 될 것 같다. 저성과자 해고나 성과연봉제가 경제발전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올해 사용자가 이 두가지만 안하면 원만한 교섭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본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 임금삭감이었다. 모든 피해를 노동자들이 전부 뒤집어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 때문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 올해 임단투는 정부의 노동개악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교섭원칙 합의, 코스모링크 교섭위원장만 쟁점

이 날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교섭원칙에 합의했다. 교섭위원 및 성원, 교섭장소 및 일시, 운영원칙을 결정했다.

○ 교섭위원 및 성원

각 사별 임원급 2인 이상, 총 13명. 각 사별 1인 이상 6명 이상 참여를 성원으로 한다.

○ 교섭장소 및 일시

매주 목요일 15시. 사업장별 순회

(한온시스템-보쉬-대한이연-JCC-코스모링크-KDK)

○ 운영 원칙

- 간사 : 노측 (지부 박운중 사무국장)

사측 (한온시스템 한일수 상무)

- 사회 : 노측 (보쉬지회 김정은 사무장)

사측 (대한이연 어용수 부장)

- 서기 : 노측 (지부 임성우 교육선전부장)

사측 (한온시스템 신병용 과장)

- 회의록 확인은 교섭 개시 전 회사측 서기가 전자 교섭결과 낭독 후 노사 서기가 서명한다.

- 교섭 중 요구안을 추가할 수 없으며, 합의항 사항에 대해 재론할 수 없다.

- 각 사별로 대표이사 위임장을 제시한다.

다만, 코스모링크 교섭위원 중 부장급 교섭위원이 포함되어 차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부는 임원급 교섭위원이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임단투 시작하자마자 개악안을 제출한 회사들이 있다. 한온시스템과 코스모링크, 코스파. 노동개악 정부 지침을 홀탕히 따르려고 각종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올해 지부 임단투는 노동개악과의 싸움이라고 했다. 개악안을 들고 나온 회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대로 될 것이다. 사측이 정부 지침에 따라 호들갑만 떨지 않으면 올해 교섭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2차 교섭 속기록

임원급 교섭위원, 각 사별 1인 이상 참석해야 교섭 진행

노 : 1차 교섭에 사측이 불참한 것에 대해선 유감 표명 하겠다.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위기 때마다 노동 자에게 전가했는데, 그 방식으로는 한국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또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서 기존의 노사관행을 파괴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부의 쉬운해고 행정지침으로 노사간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쉬운해고는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기반과 현장이 무너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 저성과 자 해고나 성과연봉이 결코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델 이 될 수 없다. 올해는 이 두가지만 사용자들이 안하면 원만한 교섭이 될 것 같다.

사 : 가물었는데 오늘 비도 오고 교섭시간에는 멈춰주고 상당히 좋다. 봄이 시작되면서 지부교섭도 시작됐는데 항상 교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노사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도 노사가 큰 마찰없이 지혜를 모아 극복하는 교섭의 장 이 되면 좋겠다.

노 : 교섭 장소는 오늘 한온시스템 시작으로 보쉬, 대한 이연, JCC, 코스모링크, KDK 순서로 진행하면 좋겠다. 교섭일시는 매주 1회 교섭원칙으로 하고 매주 목요일 15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사 : 동의한다.

노 : 사측 교섭위원 13명인데, 각사별 임원급으로 2명 이상으로 하되, KDK만 부장급 참여를 동의했다. 올해도 그렇게 하자. 교섭 성원은 13명 과반인 7명 참석으로 하 자. 각사별 1인 이상 꼭 참여하는 걸로 교섭성원을 결정 했으면 한다.

사 : 과반 참석이 합당할 수 있지만 회사 사정상 한 개 회사라도 빠지면 교섭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 6개 회 사가 있으니 6명 이상 참석을 교섭성원으로 하자. 각 사 별 1인 이상 참여도 상당히 어렵다.

노 : 원만히 교섭하려면 각 사별로 1인 이상 참여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한 두 개 회사가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빠지거나 두 개이상 사업장이 빠진 채 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사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노 : 코스모링크 부장급 교섭위원은 임원으로 했으면한다.

사 : 코스모링크 조직편제상 부장이 공장장을 하고 있다. 교섭해태하려고 부장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노 : 대표이사 불참시 임원급으로 양해했다. KDK는 회 사 사정상 부장급 참여를 인정했다. 코스모링크까지 예 외를 인정하면 다른 사업장까지 다 열린다. 임원급 교섭 위원이 참석해야한다. 총괄이사는 교섭참여가 어려운가?

사 : 총괄이사가 지회교섭은 책임감 갖고 참석했다. 회사 사정을 지회에도 사전에 전달하고 들어왔다. 양해바란다.

노 :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든 하면 된다. 부장급 교 섭위원을 열어두기는 곤란하다.

사 : 공장장이 부장이어도 임원급 범위에 포함된다.

노 : 사회자, 서기, 간사 문제는 정리하고 정회 후 교섭 위원 및 성원 문제 논의하자. <사회, 간사, 서기 합의>

사 : 교섭성원은 6인으로 하되 각사별로 1인 이상 참석 하는 것으로 하겠다.

노 : 각사별로 1인 이상씩 참가하는 것을 회의록과 합의 내용에 명기하자. 코스모링크는 사업장에서 논의해서 차 기 교섭에 오시면 좋겠다. 한온시스템도 부사장이 7명이 나 있는데 전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지회가 동의하기 어렵다. 오늘은 큰 일이 있어서 전무가 대신 참석한 것 으로 알겠다. 오늘 한온시스템에서 교섭하는데도 한온시 스템 사장이 안나왔다. 힘들더라도 교섭이 열리는 사업 장 사장은 꼭 참석하라.